##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5.6.1~2015.6.7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어떻게 살 것인가(설정스님의인생법문) | 설정,박원자 | 나무를심는사람들 |
| 2 | 완벽하지않은것들에대한사랑 | 혜민 | 수오서재 |
| 3 | 월호스님의 화엄경약찬게 강설 | 월호 | (주)조계종출판사 |
| 4 | 약사유리광칠불본원공덕경 | 원순 편역 | 법공양 |
| 5 | 법륜스님의행복-행복해지고싶지만길을몰라헤매는당신에게 | 법륜 | 나무의마음 |
| 6 | 설전(법정이묻고성철이답하다) | 성철,법정,원택 | 책읽는섬 |
| 7 | 생사의 근본에서 주인이 되라 | 허운/정원규 | 불광출판사 |
| 8 | 한암 | 남지심 | 민족사 |
| 9 | 스님의 비밀 | 자현/석공 | 조계종출판사 |
| 10 | 미산스님초기경전강의(개정판_양장본) | 미산 | 불광출판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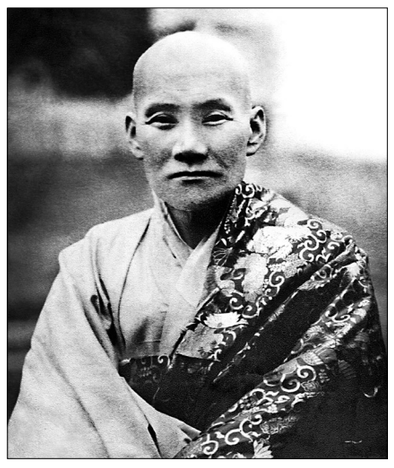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한국불교 수행 전통 되살린 한암 스님 입체 묘사

## 한암

**남지심 지음 | 민족사 펴냄 | 1만 5천원**





**근현대 한국 불교사의 진정한 사표(師表)**
**암울한 시대 한국 불교 등불 된 한암 스님**
**남지심 작가, 일대기 장편소설로 재구성**

한암 선사(漢岩, 1876~1951 · 사진)는 강원도 화천서 태어나 1897년 금강산 장안사서 행름 화상을 은사로 출가 득도한 후 한국 불교를 중흥한 선지식이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내 차라리 천고에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춘삼월에 말 잘하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강원도 오대산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입적할 때까지 그곳서 정진하며 후학들을 지도했다. 조계종 초대 종정이자 역사상 유례없이 네 차례나 종정에 오른 한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정신적 기둥이자 스승으로 추앙받고 있다.

올해는 한암 선사가 '좌탈입망(앉아서 참선한 채로 열반)' 하신 지 65주기가 되는 해이다. 이에 지난 3월에는 한암 대종사의 가르침과 수행정신을 기리는 65주기 추모다례재가 월정사에서 봉행됐다. 또한 한국불교학회는 서울 봉은사 보우당서 '한국불교 전통의 계승과 한암 선문'을 주제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 했다. 이렇게 한암 선사의 사상과 가르침은 오늘날 한국불교의 정신적 근간으로 면면이 계승된다.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스님은 "한암 대종사께서는 일제강점기 어렵고 혼탁한 시대에 치열한 수행을 통해 선과 교를 겸비하며 한국 불교의 초석을 놓으신 분"이라고 평했다.

큰 업적을 지닌 한암 선사의 일대기를 재구성한 평전소설 〈한암〉이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저자는 스테디셀러 소설 〈우담바라〉의 작가 남지심씨 이다.

소설 〈한암〉은 한암 선사가 50세 되던 해에 봉은사 조실 자리를 내놓고 서울을 떠나 오대산으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부터 시작한다. 당시 조선불교는 숭유억불 정책을 펼친 조선왕조 5백년을 거치고 일제 식민 지배를 받는 현실 속에서 피폐해져 있었다. 이런 조선불교를 어떻게 다시 중흥할 수 있을까? 조선불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소설 〈한암〉은 이 시기 한암 선사를 사로잡은 문제의식을 따라간다. 한암 스님은 책 속에서 "부처를 향한 길과 조선불교를 지키기 위한 길", 다시 말해 "오고감에 흔적을 남기지 않는 자유의 길"과 "말과 행동이 따라야 하는 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고민했다. 한암 선사는 수행자의 길과, 조선불교를 지키는 길 어느 하나도 포기하거나 외면치 않았다. 산중에 있으면서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살아간 한암 스님. 선사에게는 산문 밖의 삶과 산문 안의 삶이 다른 게 아니었다. 선사라고 하면 흔히 세상과 담을 쌓고 수행에만 전념하는 스님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한암 스님은 이런 선사의 이미지에서 더 나아가 수행과 실천이 둘이 아닌 삶을 살아가셨다. 소설의 첫 장면은 이런 한암 선사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라고 남작가는 설명한다.

한암 선사가 오대산서 산중 스님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은 승가오칙(僧伽五則)이었다. 승려라면 반드시 참선과 경전 공부를 해야 하고, 염불과 의식 집전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람을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스님답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세인의 존경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이 승려 스스로를 존엄하게 지키는 길이며, 일본인들로부터 조선불교를 지키고 살려내는 길이라고 하셨다. 이러한 한암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일제시대, 한국에 불교의 수행 전통이 되살아나고 한국 불교가 중흥할 수 있었다고 남 작가는 책을 통해 소개한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근현대 불교사의 대표적 사표(師表)로 추앙받는 한암 선사의 가장 큰 업적인 것이다.

소설 속에는 한암 스님의 수제자 탄허 스님이 출가 전 한암 스님과 서로 주고받은 서간 등 스님과 관련된 중요 자료들도 실려 있다. 이를 통해 한암 스님의 인간적 면모를 부각시키고 있다.

가령 이렇다. "그대의 재주와 덕행은 비록 옛 성현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찬미해 마지않을 것이네. 더욱 더 있어도 없는 듯하고 차 있어도 비어 있는 듯이 노력하니, 어느 누가 그 고풍(高風)을 경앙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평소에 음영(吟詠, 詩作)은 즐겨하지 않네. 그러나 이미 마음달이 서로 비추어서, 묵묵히 있을 수 없기에 간단하게 문장을 엮어 보내니 받아 보고 한 번 웃으시게."

위의 인용문은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다. 남지심 작가는 이 부분에서 "마음달이 서로 비추었다는 대목에서는 아마도 목이 잠겨 한암 스님이 계시는 오대산을 향해 조용히 허리를 굽히고 절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썼다. 행간을 읽어내는 남지심 작가의 서정적인 문체를 따라가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훗날 오대산의 거목이 된 두 사람이 나눈 우정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남지심 작가는 한암 스님 주변인들의 눈을 통해 한암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소마 쇼에이라는 일본 스님이 상원사 선원에 머무르면서 쓴 글을 통해 일본인에게도 경계를 두지 않던 스님의 모습을, 지위 높은 일본인들이 상원사를 방문한 날의 에피소드를 통해서는 권력자에게도 호락호락하지 않던 한암 스님의 당찬 모습을 보여준다. 스님은 불의 앞에선 누구보다 용감하고, 수행자로서의 덕목을 지킬 때에는 누구보다 엄격했지만 평상시엔 신도들과 제자들에게 한없이 다정했다. 또한 남 작가는 대혜성 보살이란 법명을 가진 궁녀 김씨의 목소리를 통해 나라를 잃은 조선 왕실의 비극적 현실도 드러낸다. 대혜성 보살은 순종황제 부인인 윤비를 모시던 궁녀다. 뿐만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오대산으로 피신해 온 동네 소녀의 이야기는 보는 이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학도병으로 끌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형제의 사연은 나라 잃은 민중들의 삶이 어떤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렇게 제각기 사연을 가진 등장인물들은 이 책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다. 남 작가는 "한국불교의 큰 사표이신 한암 스님의 생애를 조명하도록 기회를 주신 퇴우 정념 스님과 오대산 문중 스님들께 감사의 합장을 올린다"며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때 이 땅에 오셔서 온몸으로 한국 불교를 지켜 내신 스님의 행장과 가르침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 아이와 어른이 함께 읽는 마음동화책

## 마음을 담는 그릇

**정찬주 글 | 정윤경 그림 | 작가정신 펴냄 | 1만 1천원**



**나무 그릇에 별 담은 스님과 아이 이야기**
**산사의 맑은 목소리가 전하는 위로와 격려**
**고즈넉한 산사풍경 독창적 일러스트로 표현**

요즈음 어디에서건 너나 할 것 없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내 몫을 챙기지 못해 바쁘고 분주하다.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오가며 치열하기 그지없는 일상을 보내며 지친 우리에게는 잠깐 숨을 돌릴 틈이 필요하다. 그리고 좀 더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다. 불교적 사유와 의식의 세계에 깊이 천착해 온 작가 정찬주가 일러스트레이터인 딸과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 특별한 그림책을 출간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읽으며 맑은 마음결을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마음동화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이 책에서는 고즈넉한 산사, 자연과 어우러진 삶 속에서 나무를 깎아 그릇을 만들며 묵묵히 구도의 길을 가는 노승과 때 묻지 않은 아이의 순수한 모습이 펼쳐진다. 서정적인 이야기에 더해진 섬세하고 세련된 그림을 눈으로 좇다 보면 평안함과 안정감, 차분히 한 박자 쉬어 가는 여유와 위안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준다. 그런가 하면 피상적인 것에만 관심 갖는 물질주의 사회에 물든 나 자신을 반성하게도 된다. 그렇다면 〈마음을 담는 그릇〉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스님과 아이가 건네는 이야기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자.

낡은 절 풍경사에는 조약돌처럼 머리가 동글동글한 아이와 가지 굽은 소나무를 닮아 허리가 휜 스님 단둘이 산다. 풍경을 울리며 지나가는 바람과 한낮 구름 한 점, 돌담 구멍을 들락거리는 다람쥐도 식구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아이가 종일 산사 주위를 노니는 동안, 소나무 스님은 향나무로 나무 그릇을 깎는다. 끌질 열 번, 절 한 번, 또 다시 끌질 열 번, 절 한 번……. 나무 그릇 하나 완성하기 위해 소나무 스님은 수천 번 절을 한다. 티 없이 맑은 아이는 우직하게 나무 그릇을 깎는 소나무 스님이 마냥 좋기만 하다. 그래도 스님이 만들어 준 나무 그릇은 못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예쁘게 둥글지 않고 모과처럼 삐뚤빼뚤 못나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풍경사는 사람들의 발길로 시끌벅적해진다. 너나 할 것 없이 소나무 스님이 만든 나무 그릇을 남보다 빨리, 많이 구하려고 몰려들어 스님을 재촉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소나무 스님은 늘 한결같다. 정성 어린 손길로 크기도 모양도 똑같이, 주문한 순서대로 수천 번씩 절하며 온 마음을 다해 나무 그릇을 만들어 간다. 소나무 스님이 이렇게 나무 그릇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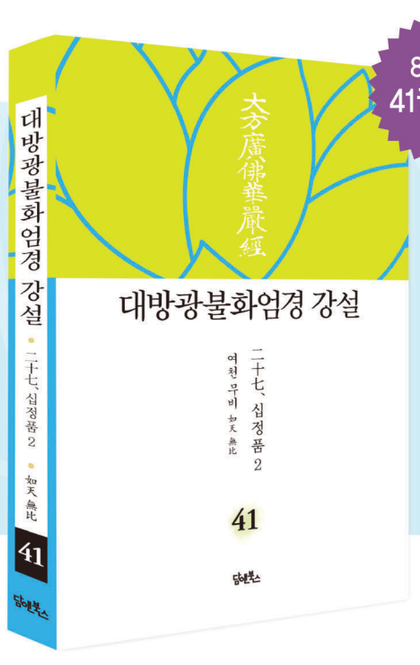
소나무 스님이 정성껏 깎아 온 나무 그릇은 절에서 쓰는 공양 그릇인 '발우'이다. '바리때'라고 부르기도 한다. 삼국 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우리에게 종교로서만이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사랑한 문화이자 역사의 일부로 오늘날까지 함께 하고 있다.

작가 정찬주는 한글 창제 숨은 주역이던 신미대사에 대해 조명한 장편소설 〈천강에 비친 달〉, 무소유의 삶을 가르친 법정 스님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 무소유〉 외에도 부탄, 네팔, 남인도, 스리랑카, 중국 오대산까지 불국을 다녀온 경험과 기록을 담은 에세이 〈불국기행〉, 어른을 위한 동화 〈돌부처〉 등에 이르기까지 오랜 세월 작품에 불교적 사유를 담아내고 있다. 남도의 화순에서 끊임없이 창작에 매진하는 정 작가는 이번 작품서 어른과 아이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자 특별한 그림책을 구상했다. 〈마음을 담는 그릇〉은 전작들과 사유와 의식을 같이해 우리 산사의 풍경에 우리 정서를 고스란히 담아 현재에도 생생히 살아 숨 쉬는 우리의 불교문화에 보다 쉽게 다가설 수 있게 한다. 영국 킹스턴대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일러스트레이터 정윤경의 첫 그림책이기도 한 이번 작품은 소나무 스님의 순수한 품성과 동자승의 티 없는 마음 그리고 고즈넉한 산사 풍경을 여느 그림책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독창적인 기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깊은 끈기와 세심함으로 완성된 그림은 그릇에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소나무 스님의 마음가짐과도 닮아 책장 너머까지 그 정성이 느껴진다.

이 책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한 어른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올곧은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전한다. 고즈넉한 산사, 그곳서 소나무 스님이 그토록 힘겹게 나무 그릇을 만든 데에는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글자를 모르는 소나무 스님에게는 참선도 염불도 어렵기만 하다. 대신 자신이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며 마음을 다듬어 가기로 한 것이다. 마음을 다해 나무 그릇 깎는 일을 멈추지 않던 소나무 스님의 모습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걸어가는 삶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화엄경 강설, 드디어 절반의 고지를 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80권본 화엄경 강설
무비 스님의 원력으로 드디어 41권 출간!

최초 최고 최대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화엄경
우리 시대 대강백 무비 스님의
현실적인 비유와 친절한 강설로 만나 보십시오.

1 ~20권 각권 12,000원 / 21~41권 각권 13,000원






무비 스님의 대방광불화엄경 사경
11~20권 세트

실차난타 한역, 무비 스님 한글 번역
11-20권 세트 100,000원

『대방광불화엄경』 강설과 사경 대작불사로 최상의 공덕을 쌓으세요. 담앤북스 02)765-1251